

## K-방산 약진에 日 '딴지'… 한화 '오스탈 인수' 기술유출 핑계

〈호주 조선업체〉



한화그룹이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오스탈의 미국 모빌 조선소의 전경. /오스탈 홈페이지

美는 한화의 지분보유 전면 허용 19.9% 확보 위한 FIRB 승인 신청  
日 '호위함' 기술유출 우려 제기에 호주, 9개월재 심사 결론 표류중  
아·태 방산 질서의 분수령 평가

한화가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일본이 '기술유출' 우려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호위함 설계 기술이 한화로 넘어갈 수 있다며 호주 정부를 압박했고, 이 반발이 호주 심사를 9개월째 멈춰 세웠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미 한화의 지분 보유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이번 인수전은 한화의 해양 플랫폼 도약과 일본의 방산 영향력 사수가 충돌하는 아·태 방산 질서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3월 호주 오스탈 지분 9.9%를 확보하며 전략적 투자에 나섰고, 이후 지분을 19.9% 까지 확대하기 위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FIRB 승인을 받을 경우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는 이미 지난 6월 한화의 지분 보유를 전면 허용하며 최대 100% 보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호주 FIRB의 심사는 9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 중이다.

오스탈은 호주가 지정한 전략조선사(SOF)이자 미국 해군의 핵심 함정 공급업체로, 앤리버마·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조선소를 운영한다.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수주 잔고만 142억 호주달러(약 13조4,800억 원)에 달한다.

한화로서는 미국·호주 해군 조달망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일본의 강한 반발이 꼽힌다. 호주 정부는 지난 8월 신형 호위함 11척(110억 호주달러)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일본미쓰비시중공업(MHI)을 선정했고, 이 중 8척은 오스탈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의 최대주가 되면 '일본 설계 → 오스탈 생산 →

한국 기업 산하 조선소 건조'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방산 수출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호위함 수주가 첫 대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의 문제 제기가 현실적 기술 유출 가능성보다는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불안감에 가깝다고 본다. 호주·일본·미국 간 방산 프로젝트는 정부 간 협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설계 문서는 정부 승인 없이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 오스탈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별 기술 접근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탈 USA는 ITAR 규제를 적용받아 소유주가 누구든 외국 기업의 기술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지분 구조 변화만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기술적 위험과 별개로 정치·외교적 부담이 호주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장관은 "한화의 지분 확대 심사와 관련해 다음 주 결정을 내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공개하고 싶다"고 밝히며 결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달 승인 여부에 따라 한화는 미국·호주 해군 조달망에 직행하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화오션의 조선 역량,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장·엔진 기술과 연계해 한국 방산 기업의 해양 플랫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육·공군 중심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K-방산이 해양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방산 공급 체계의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기술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주 함정 사업에서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이 더 크다"며 "미국이 이미 한화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 만큼 호주도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수 없고, 결국 어떤 '정치적 균형점'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인수전의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성장률 위해 당분간 확장재정 불가피"

李 대통령, 기재부·데이터처 업무보고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대폭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인력 충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체납을 통해 어느정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IS

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 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증진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까지 설립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정신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신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 이어 외청인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세체납관리단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400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력을 무조건 확충해 조세정의 실현과 고용창출을 노력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현대차그룹, R&D수장에 하러 부사장 유력

내주 18일 전후 사장단 인사 예정  
양희원 본부장 '세대 교체' 용퇴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 조직 개편 및 사장·임원 인사를 앞두고 '새판 짜기'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부문과 국내사업본부, 제네시스사업부 지휘부 교체에

이어 완성차 개발을 총괄하는 연구개발(R&D)본부 수장 교체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희원 현대차 R&D본부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만프레드 하러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장은 오는 15일 남양연구소에서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주 사장단 인사에서 하러 부사장을 사장 승진 후 R&D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하러 부사장은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등 현대차의 다섯번째 외국인 사장이 된다.

하러 부사장은 아우디와 BMW, 포르쉐 등에서 새시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개발을 총괄한 인물이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애플카)도 주도하며 IT 업계에도 몸을 담았다. 현대차그룹에는

지난 5월 합류했다. 현대차 R&D본부장은 남양연구소 수장으로 신차 개발과 선행기술 연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앞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를 이끈 정유석 부사장 후임으로 국내판매사업부장 김승찬 신임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 부사장은 기존 직무와 겹침하며 국내판매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김 부사장은 국내 판매 전략과 현장 운영을 오래 다져온 실무형 인사다. 이번 인사는 체계 일원화와 판매 조직의 기동성 제고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이끄는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자리에는 북미권역상품실장 이시혁 신임 전무가 승진해 발탁됐다. 이 전무는 북미권역 기획실장, 북미법인(GMNA) 업무총괄 등을 맡아 오며 현지 시장 구조와 소비자 요구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자율주행 부문을 이끌어온 송창현 사장의 사임으로 현재 공석인 첨단차플랫폼(APV)본부장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18일 전후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

## 메트로 한줄뉴스



▲李 "국민들이 세금내는데 인력 없어서 일 못한다는 것 말이 안 돼"  
▲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필비 과정서 국회법 위반”

/사진 뉴시스

▲정청래 “李·민주, 놀라울 정도로 생각 일치…‘사법개혁’ 일치단결해달라”

▲국힘, ‘2030 레드팀’ 출범…장동혁 “쓴소리 겪히 경청하겠다”

▲조국 “강남에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토지공 개념 3법’ 기획단 꾸릴 것”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62%·‘못하고 있다’ 30%

# 美, 3연속 금리 낮췄지만… 한은, 환율·집값 불안 ‘동결’ 무게

연준, 기준금리 연 3.50~3.75%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중후반 韓, 공격적 금리 인하 부담 클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p) 내리면서 세 차례 연속 인하를 이어갔다. 동시에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들어왔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해,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내년에는 ‘더 많이 내리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0일(현지시간) 기준이 되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에서 3.50~3.75%로 인하했다. 9월 이후 세 번 연속 0.25%p씩 내리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누적 인하 폭은 1.75%p에 이르렀다.

성명에서 연준은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에 하방 위협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이번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준이 그리는 향후 금리 경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위원들이 제시한 기준금리 중앙값은 2025년 3.6%, 2026년 3.4%, 2027~2028년 3.1%로 9월과 거의 같다. 장기 균형금리도 3.0%를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하로 정책금리는 여전히 추정치를 기준으로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며 “지금 위치는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내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번 표결에서 제롬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부의장 등 9명은 0.25%p 인하에 찬성했지만, 스티븐 미런 이사는 0.50%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오스틴 굴즈비·제프리 슈미트 총재는 동결을 선호해 반대표를 던졌다. ‘빅컷·소폭 인하·동

결’ 세 갈래 시각이 모두 표로 드러난 셈이다.

통화정책 수단 측면에서도 긴축에서 완화로의 전환이 뚜렷하다. 연준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12월 1일부로 보유자산 축소(QT)를 종료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국채(T-bill)를 매입하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공식화했다. 명목상으로는 유동성 관리 목적이지만, 시장에서는 “대차대조표가 다시 확대되는 방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금리 인하, QT 중단, T-bill 매입을 통해 긴축의 세 축이 모두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기’에 가깝다. 결정 이후 미 국채 2년물·10년물 금리는 동반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약세로 돌아섰다. 뉴욕증시는 S&P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정책결정문에 추가된 “향후 조정의 폭과 시기” 문구 때문에 걸로는 ‘매파적 인하(hawkish cut)’ 우려가 제기됐지만, 노동시장 둔화와 물가 경로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 QT 종료·T-bill 매입이 겹쳐 실제 거래에서는 “긴축 사이클

이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국내 사정은 한층 복잡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2.4%, 근원물가는 2.2%까지 올라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를 웃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국고채 금리와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이 동시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연준 인하로 한·미 기준금리 차이(미 상단 기준)는 1.50%p에서 1.25%p로 줄었다. 미국조차 정책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주는 상황에서, 물가와 금융 불균형 압력이 더 큰 우리나라가 먼저 공격적인 인하에 나서기는 부담이 크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 정책결정문 및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혁신기업, 가장 필요할 때 효과적 지원”

### 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5년간 정부 75조, 민간 75조 구성  
인프라투융자 50조, 대출 50조 지원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위원회에는 민관공동위원장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겠다며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후 20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금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망한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전자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두 단계의 의사 결정구조를 거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개별 투자건별 또



박상진(왼쪽 일곱 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한화, 김동선 직속 M&A 조직 신설 로봇·반도체 장비 공격투자 나서나

김 부사장 경영 계열사 사무실 거점  
김동선 그룹내 역할 확대 가능성도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한화 부사장 직속의 M&A 전담 조직이 새롭게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호텔 사업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혀온 김 부사장이 로봇·반도체 장비 등 신성장 사업에서도 공격적 투자에 나설 채비를 갖추면서 그룹 내 역할 확대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화는 최근 김동선 부사장이 담당하는 사업군의 인수·합병(M&A) 기회를 발굴·검토할 전략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김 부사장이 경영하는 계열사 사무실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그룹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된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적으로는 각 계열사 소속이지만, M&A 전략 논의와 투자 검토는 전담 조직에서만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김 부사장이 경영하는 회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 ▲한화비전 ▲한화로보티스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등이다. 신설된 전략 조직은 이들 사업의 성장 전략과 M&A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올해 아워홈(8695억원) 인수, 고메드갤러리아의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인수(약 1200억원) 등 급직한 거래를 성사시키며 유통·급식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해왔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멘순’ 국내 론칭 등 소비자 사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전략 조직 출범으로 협동로봇과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추가 M&A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화로보티스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외형 확대가 필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장비 계열사 한화세미텍은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 분야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몸집 키우기를 통한 사업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김동선 부사장의 독자 사업 기반 구축 과정으로 해석한다. 한화그룹 매출에서 방산·조선과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을 넘어, 각각 장남 김동관 부회장과 차남 김동원 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통·로봇·장비 등 김 부사장이 맡고 있는 사업들은 성장성이 높지만 아직 규모는 작다. 사업 외형을 키워야 그룹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그룹은 이미 지배구조 재편도 대부분 마무리했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3월 한화 지분(11.32%)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삼형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증여 이후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김동선 부사장 각 5.37%로 지분이 조정됐고,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한화에너지를 포함하면 한화에서 삼형제가 보유한 지분율은 총 42.67%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대한 실무심사를 진행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밖에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 및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운용전략을 수정,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 내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지원

이날 이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이루는 전후방 전반에 대한 지원 ▲관련 벤처 기술 혁신기업의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이며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방식의 자금수요에 맞춤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정부재정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펀드), 인프라투융자, 조저리 대출 등으로 종합적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조저리대출 5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적어도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분야에 따라서는 장기투자·대규모 투자 등도 지원한다.

그는 “첨단산업 중 유망기술기업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 기술 투자펀드’를 신설하겠다”며 “민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자금을 공급해 운용역량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기업기들의 혁신과 창의가 우리경제를 위대한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초저지연·고신뢰 5G 시대 연다 AI 등 미래산업 인프라 대전환

## 5G SA 전환 의무화

LTE 기반 비단독모드 구조 개선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인프라 활용  
“5G SA 없는 AI는 공허한 외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면서 5G 단독모드(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 5G 서비스가 처음 제공됐을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LTE 기반의 비단독모드(NSA)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초저지연·고신뢰 5G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5G SA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된다.

1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3G·LTE 주파수(총 370MHz)를 계속 사용하려는 통신사에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조건으로 제시했다.

5G SA는 5G 기지국과 코어망 전체를 5G 전용으로 구축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NSA와 달리 LTE 망에 의존하지 않는다. SA는 NSA 대비 통신 접속 시간이 2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효율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연 시간 감소와 단말기 배터리 소모 절감 효과도 있다.

과기정통부의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 사물인터넷(IoT) 등 5G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다”며 “지금은 1개 사업자(KT)만 SA를 제공하고 있지만 3개 사업자가 전부 SA를 의무화하면 사업자들 간의 경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무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정부가 강경책을 끼낸 배경에는 통신 3사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돌입했음에도 여전히 5G NSA(비단독모드) 방식을 고수 중인 곳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5G SA를 도입한 곳은 KT뿐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에 필수적인 ‘제어 신호’를 기존 LTE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고속 데이터 통신은 5G망을 이용하더라도, 진정한 5G의 초저지연 특성 구현이 어려웠다.

정부가 5G SA 전환을 의무화한 것은 5G가 단순한 스마트폰 속도 향상을 넘어 미래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SA는 지연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원격 의료,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 제어 등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이 필수적인 기업간(B2B) 협신 서비스에 핵심 역할을 한다. 또, 하나의 망을 여러 용도로 논리적으로 쪼개 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SA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기능 제공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이용자가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업링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기존 다운링크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

GSA는 이러한 트래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 N) 구현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김협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5G SA 없는 AI는 공허한 외침이다. 기존에 깔린 통신망을 활용해 5G SA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독일, 일본, 미국 모두 정부가 통신 인프라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판단은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린다. 애리슨이 최근 발간한 ‘애리슨 모빌리티 리포트’는 5G SA가 이미 세계 시장의 주류로 이동 중임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5G 가입자는 29억 건으로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31년엔 64억 건으로 늘어 전체의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5G SA 가입은 약 41억 건(전체의 65%)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벨 톰바즈 애리슨 CEO는 “5G SA 투자는 6G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며 “AI 전환 속도가 전에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가 없으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인력유출 등 우려 목소리 매각 작업 장기화 조짐도

## HMM 본사 이전

정부, 본사 이전 관련 압박수위 높여  
직원들 결사반대… 아직 움직임도

“유치원 딸 아이의 소원은 ‘우리 가족 함께 살게 해 주세요’입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한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시작되면서 HMM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실질적 경제 효과 저하와 인력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MM의 매각 작업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HMM의 부산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해당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HMM 사내에서는 이에 결사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노사는 지난 10일 마련된 다섯 번째 임단협 협상 자리에서 본사 부산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본사 이전에 대한 반대가 아닌 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HMM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비중은 10~15%에 불과하며 대부분 해외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화주 대응과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력 구조도 문제다. HMM은 약 1900여명의 직원 중 1057명이 육상 직

원으로 800여명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국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HMM은 현재 본사 이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산 본사 이전이 강행될 경우 HMM 직원들의 파업이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HMM 본사에서 근무중인 육상 직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우리 가족은 당장 떠나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다른 직원들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인력 유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이전은) 글로벌 수주 측면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HMM의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23년 인수전에 참여했던 동원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인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본사 이전과 노사 갈등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10조원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또 기업을 인수후에도 노사 갈등과 정부 개입 등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해운산업이 불황 초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HMM의 민영화 이후 본사 이전을 진행하는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MM 컨테이너 선박

##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 1 연금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9%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13%  
개혁안

### 2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40%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

43%  
개혁안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 3 지급보장을 명문화 합니다.

국가 지급보장

### 4 크레딧 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  
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부품국서 주력국으로’… K-방산, AI·무인기 주도 전장 변화

## 산업결산 ① 방위산업

올해 산업계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거센 변화를 맞았다. 그 속에서 도 각 업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멀거리 발굴을 위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본 기획은 업권별 주요 이슈와 흐름을 되짚어보고, 산업 전반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편집자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2025년 국제 안보 환경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가파르게 변했고, 세계는 다시 무장을 선택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올라섰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2025년 한국 방산은 글로벌 주력국으로 발돋움했다.

### ◆ 속도·공급망·기술… 전쟁의 경쟁 기준이 바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7000억달러(약3804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9.4% 증가했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또한 전쟁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무기 성능보다 생산 속도와 공급망,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155mm 포탄 재고는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에 미국은 포탄 생산량을 지난해 월 2만 발에서 올해 월 8만 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고, EU도 ‘A SAP 프로그램’을 통해 155mm 포탄 100만 발을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대형 방산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기술적 우위를 가졌지만, 복잡한 조달 구조와 생산 지역으로 제때 공급하지 못했고, 그 틈은 K-방산이 차지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탄약, 정비·훈련 패키지까지 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또한 조립·부품 제조 기반이 밀집되어 있어 포탄·장갑차·미사일 일부 품목에서 6~12개월 단위의 안정적 공급 계약이 가능하다. 단순한 ‘대체 공급’ 효과를 넘어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나타난 경쟁력 입증이다.

실제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을 유럽 경쟁국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환경 요인·공급망 전환 전쟁 장기화 속도·납기 전력 핵심 서방 공급 지역 틈새서 韓 대안 부상 공급망 재편 흐름 속 존재감 확대

한국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또한 시장을 확대하는 핵심 요소다. K2 전차의 경우 동일급 서방 전차(M1A2, 레오파르트2A7 등) 대비 가격이 약 30~40% 낮고, 유지·정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수명주기비용(LCC)이 서방 경쟁 제품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예산 대비 전력 극대화를 노리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글로벌 국가들은 방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성비·납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대 국가별로 조정된 분업·현지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납품 일정 조정 영향으로 매출이 22.6% 감소, 영업이익 21.1% 감소하며 유일하게 실적이 뒷걸음질했다. 그러나 회사는 단기 실적보다 미래 전력을 선택하면서 R&D 비용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 기술 확보가 향후 항공 방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AI가 올해 잃은 것은 숫자지만, 얻은 것은 미래 성장곡선이다.

4개사의 수주잔고는 총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향후 수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수출 호황’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공급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 ◆ AI·무인기 대전환 2025년, 전쟁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게 되다

2025년은 전장에서 ‘인공지능’과 ‘무인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력의 기본 단위가 된 해였다. 드론은 전차와 견줄 전력으로 성장했고, 군집드론(드론 스웜)은 기존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 AI는 표적 탐지, 위협 식별, 전장 상황 판단, 전자전 대응 등 기존에 인간이 하던 역할을 점점 대체하고 있다.

산업 구조 재편·기술 전환 가속  
4개사 성장·R&D 확대, 입지 강화  
AI 확산으로 전력 운용 기준 재정의  
공급·기술력 강화로 새 단계 진입

한국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 예산 효율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육·해·공 각 군이 무인 자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폭발물탐지제 거로봇으로 국내 최초 무인체계 전력화를 달성했고,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세르파’, LIG넥스원은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개발에 나섰다. 공군은 KF-21 전투기를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AAP, UCAV) 실증을 추진하며 ‘한국형 CCA’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뤄 공대공·공대지·전자전·정찰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무인기다.

AI와 무인기는 더 이상 기술 옵션이 아니라 전쟁의 언어 자체를 바꾼 요소이며, 2025년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의 중심을 향해 확실하게 이동했다.

올해 한국 방산산업의 성과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기준이 ‘최첨단 무기’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국’으로 바뀐 전환점에서, 한국은 정확히 그 자리를 선점했다. 동시에 AI·무인기·전자전 등 미래 전장 기술 투자도 가속화하며 ‘K-방산 2.0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운 연구원은 “AI와 자율화가 무기의 눈과 귀를 대신하면서 전장은 더 넓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무인의 시대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생존의 논리로 국가 간 전력 격차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t, 당신과\_\_미래 사이에



대한의  
첫 연결부터

미래를  
여는 경험까지

KT가 이어온 시간  
한 곳에 모이다

시간을 거닐다

KT 온마루

2025.12.01.OPEN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 빌딩 WEST 2층

\*KT 온마루에서 1885년 시작된  
연결의 기술이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여정을 거닐어보세요



# 李 정부 내각까지 퍼진 '통일교 후원'… 野, 대여 공세 고삐

전재수 해수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 의혹 부인 野, '통일교 게이트' 판기우기 주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이재명 정부 내각으로까지 번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단한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 고리로 삼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훈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면서도 "(사의는)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확장하며 '통일교 게이트'로 판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며 "이 사건 정점에 누가 있겠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10일) 윤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야당만을 겨냥해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전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쳐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훈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전 전 장관 측으로부터 윤 전 본부장이 만났다고 주장한 날에 구포성당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영호 씨를 애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 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

다. 당시 정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상태였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고교 동창 등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천정궁)를 잠시 방문했고,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 등 3명이 차를 마시며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윤 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자신감이 불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금액이 나오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 보도) 어디에 도근거가 없다. 용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정확히 특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덮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당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들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도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전선을 민주당에서 이

## '가맹사업법' 본회의 통과… 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부여 법안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 될 것"

형사소송법, 판결문 열람·복사 확대 野 "여러 핵심적 헌정가치와 충돌"

국회가 11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을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1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 가맹점주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 및 미 이행시 시정조치 ▲ 가맹지역본부(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 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

하고, 을(乙)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의탁거래, 중소기업협동 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세 번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 및 표결하고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맞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

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장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처럼 법리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다. 사건 당시 구체적 행적, 가정사, 직장 내 인간관계, 의료·재산·친밀 관계 등 민감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박주민 민주당 의원,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

'기본·기회' 특별시로 전환 서울 미니멈·맥시멈 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과 지지자 등 100여 명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내에서 서울시

장 출마선언이 나온 건 박홍근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에 앞서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은 이관훈 배우, 서울시 잠실청년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정환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 아이 4명을 키우는 40대 다둥이 아빠, 티투이스트 김도운, 라미령 화장품 스타트업 대표, 최영우 문화예술청년 네트워크 우루루 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서울을 기본을 지킬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서울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개의 '서울 미니멈'을 지켜 서울 시민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특별시 서울'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공·민간 투트랙으로 제공하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 아동·노인·장애인·긴급 돌봄을 하나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은 박 의원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 발언을 한 시민 7명과 박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연결하는 돌봄이 가장 촘촘한 서울 등 근본부터 바뀐 안전도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전환을 위해 박 의원은 5개의 목표로 이뤄진 '서울 맥시멈'도 발표했다.

/박태홍 기자



daesang  
대상주식회사

# 대한민국 No.1 국물요리

Nielsen Korea 냉동 국탕찌개 카테고리 판매액 기준 [23.01~24.10]



**HOME:INGS**  
호밍스

만족을 요리하다

해동 없이 둘만 부어 끓이는  
**초간편**  
국물요리

# 보험료 내리고 손해율 치솟아… 손보사 '구조적 적자' 위기

손보사 4곳 올해 車보험 손해율 85%  
최근 15년 누적 적자 7.2조 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9%  
비급여 콜립·도덕적 해이 영향 커  
"실손 보험료율 현실화 절실"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경고 이미지.

는 최근 15년(2010~2024년) 누적 적자는 7조2000억원, 올해만 5000억~6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4년 연속 내려왔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해마다 인하해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공임은 지난 2022년 4.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2~4%대 인상이 이어졌고 부품값·렌터카 비용·인건비도 뛰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와 생계형 보험사기까지 겹치면서,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이제는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10월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85.7%로 집계됐다. 손의분기점으로 여기는 8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0월 한 달 손해율은 87.4%까지 치솟았고, 올해 3분기까지 이 부문에서만 952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자동차 보험은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사업이라기보다 손해만 덜 나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덩치가 워낙 커서 보험료를 1~2%만 낮춰도 손해율이 그만큼 나빠지고, 개별 회사 입장에선 손익이 몇 백 억원씩 증발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을 합친 위험손해율은 119.3%다. 1세대와 2세대는 각각 113.2%, 114.5%였고,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까지 올라 전세대가 적자 구간에 놓였다.

최근 5년(2020~2024년) 누적 적자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올해 11월 18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료는 2022~2025년 14.2%→8.9%→1.5%→7.5%씩 올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세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콜립과 도덕적 해이는 실손 적자의 직격탄이다. 지난해 손보사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3조 9000억원(30.1%)을 차지했다. 이 중 물

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 나갔고, 비급여 보험금은 2017년 4조 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수 가입자(약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 안팎을 가져가는 불공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사이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실손이, 교통인프라·의료비·정비비 상승을 자동차보험이 대신 떠안았다. 가격 인 보험료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놀라 놓고, 비용인 비급여·정비비와 허위·과잉청구는 제대로 견드리지 않은 결과가 손해율을 급등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 의료보험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면서, 판매 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손 1~4세대의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고 요율 조정 원칙과 소비자 부담 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KB국민카드

### 'KB특별한 적금' 가입 연 최고 15% 금리혜택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과 제휴해 적금 상품에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KB국민 위시올(WE:SH All) 카드'를 보유하고 직전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26년 2월 28일 까지 'KB 특별한 적금' 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KB 특별한 적금 최고 이율은 연 6.0%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KB국민 위시올(WE:SH All) 카드'를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월까지 월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달성 횟수에 따라 최고 연 9.0%포인트(p)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벤트 대상 고객이 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만원의 만기 축하금을 추가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1일 "당사 대표 카드상품과 KB국민은행 대표 적금 상품을 연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 스타벅스 별 적립해 주고 해외 배송비 10달러 할인

### 카드사, 연말 프로모션 다채

카드사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가맹점 제휴를 통해 해외여행객을 겨냥하는 한편, 경품 추첨 등 시즌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 달 말까지 글로벌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해외 스타벅스에서 우리카드로 결제 2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 별 8개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日 돈키호테 이용 시 캐시백 KB국민, 해외 가맹점 100만 포인트 신한, '디스커버가 쓸께요' 이벤트

연말 맞이 일본·미국·베트남 여행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일본 돈키호테 전 지점에서 1만엔 이상 이용 고객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베트남 롯데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3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미국을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할 때마다 5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코스트 코·트레이더·타깃 등 미국 주요 대형 마트에서 결제하면 30%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해외 배송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자(Visa)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 구매 인증 후 아이포터·몰테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달러의 배송비를 즉시 할인해 준다.

## 금감원 "대부업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

### 서울 등 4곳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을 돌며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최근 불법추심, 초고금리 계약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일제 검사와 함께 현장 교육을 병행해 죄악차주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부산, 17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업무상 유의사항(세션 I)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과 채권 추심 시 유의사항(세션 II)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세션 III) 등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주형 기자



우리은행 굿월브랜치(우리은행X굿월스토어 밀알여주홍문점) 1호점. /우리금융

## 우리금융, 사회공헌형 점포 '굿월브랜치'

### 은행+기부매장 공존 '여주점'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에 사회공헌형 은행점포 '굿월브랜치 여주점'을 개점했다고 11일 밝혔다.

'굿월브랜치'는 폐쇄 예정이었던 우리 은행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고, 남는 공간에 굿월스토어를 입점시킨 '숍인숍(Shop-in-Shop)' 방식의 사회공헌형 점포다. 은행과 기부 매장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 혜택을 거둘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방 영업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권 최초로 유류공간과 굿월스토어를 결합한 상생 모델을 도입했다. 굿월브랜치 여주점은 지역 내 금융권 1호 사회공헌형 점포로, 향후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신용회복위원회

### 주거취약계층 지원 서울시와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직활동이 제한된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제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시 신용회복 상담병행 ▲노숙인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 된 상담 신청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LG전자, 내년 CES에서 HPC 공개

## ‘글로벌 시장 AIDV 전환 주도할 것’

〈인공지능중심차량〉

퀄컴테크날러지스와 HPC 개발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 탑재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최초 공개

LG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 테크날러지스(이하 퀄컴)’과 함께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차량용 고성능 컴퓨팅 장치(HPC)를 공개하며 인공지능중심차량(AIDV)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HPC에 적용되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인 ‘AI 캐빈 플랫폼’을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최초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새로운 AI 캐빈 플랫폼이 적용된 디지털 콕핏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을 넘어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AIDV 기술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AI 캐빈 플랫폼은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언어 모델(VLM)을 비롯해 대형 언어 모델(LLM),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해 탑승자의 차량 내 경험을 새롭게 만든다.

AI 캐빈 플랫폼에는 퀄컴의 고성능 오토모티브 솔루션인 ‘스냅드래곤 콕핏



LG전자가 CES 2026에서 차량용 고성능 컴퓨팅 장치를 위한 AI 솔루션 ‘AI 캐빈 플랫폼’을 공개한다. AI 캐빈 플랫폼이 전방의 차량을 인지하고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미지. /LG전자

엘리트’가 탑재됐다.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가 구현하는 뛰어난 컴퓨팅 성능으로 모든 AI 연산은 차량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된다. 외부 AI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 없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보안 측면에서도 외부 유출 가능성은 차단돼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다.

AI 캐빈 플랫폼은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입수한 주변 환경, 탑승자의 상태 등을 AI가 분석해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출근길에서 외부 카메라로 옆에서 합류하는 차량을 인지하고, 내부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석해 ‘합류 구간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세요’라는 가이드를

디스플레이와 음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맞춤형 이미지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눈이 쌩인 길에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주변 환경을 분석해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눈이 내리는 모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마을 등 주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음악 재생 화면으로 생성한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SDV를 넘어 AI DV로의 전환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두산에너빌리티, ‘대형원전·SMR’ 성장궤도 안착

원전분야 등 글로벌 수주 증가  
내년 예상 영업이익 1.3조 이상



동맹국의 제작·시공 역량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대형원전(AP1000) 공급 경험과 SMR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춘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공급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다. 2019년 약 1조원을 투입,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에 SMR·가스터빈·수소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 기술 재생화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SMR과 대형 원전 양 분야에서 제작·조달 역량을 확대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미국은 현재 95~100GW 수준의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400GW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원전을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2030~2050년 사이 추가로 약 297GW의 신규 용량이 필요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40년까지 연간 20~25GW 규모의 신규 건설이 요구된다. 이런 확장 기조에 맞춰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 에너지 등 미국 주요 SMR 설계사들과 협력을 이어가며 글로벌 SMR 공급망

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주기 기 제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고 있어 1차적 수혜자”라며 “뉴스케일·X-에너지 등 글로벌 SMR 개발사 대부분이 제작시설이 없는 ‘웹리스’ 구조여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주기 기 제작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업 수요 역시 많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과 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은 5조 3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8% 증가했으며, 4분기에 체코 신규 원전 2기 주기 기 공급과 가스터빈 추가 수주 등이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전력 설비 전반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기존 설비의 존도를 높여온 탓에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확산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면서 원전을 포함한 대형 전력 설비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원전 수요는 단기간 반짝 흐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 車 부품 기업들, 글로벌 로봇시장 본격 진출

현대모비스 등 엑추에이터 사업 집중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보틱스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엑추에이터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며 향후 급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L만도는 이날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하고 조성현 CEO가 직접 로보틱스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엑추에이터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공개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사업 목적에 로보틱스를 추가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올해 7월 로보틱스 사업부를 실단위로 격상하며 힘을 싣고 있다. 최근에는 로보틱스 사업 추진 속 신입 채용 공고를 내며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채용 분야는 모터, 기구·시스템, 전자,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조향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엑추에이터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찾기로 했다. 엑추에이터 분야를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핸드그리퍼(로봇 손) 등의 영역으로도 로보틱스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계열사 모델 솔루션도 로봇 기술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델 솔루션은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기반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경량 스마트 엑추에이터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엑추에이터는 AI의 판단과 명령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구동 장치로, 모터·감속기·드라이브·센서·통신 기능을 하나의 모듈에 통합한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이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엑추에이터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기술과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 /현대차

간의 관절, 균육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엑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구동을 담당하는 핵심 모듈로, 모터, 감속기, 제어기로 구성된다. 이는 차량 조향 부품의 핵심 구성 요소와 비슷하다. 특히 엑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60%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고부가 가치 영역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 10월 스위스 엔지니어링 그룹 ABB의 로보틱스 사업을 약 54억달러에 인수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독일의 쿠카 등이 로봇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엑추에이터 시장은 2023년 134억 달러(약 19.7조원)에서 2032년 400억 달러(약 58조원)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로보틱스 기술은 아직까지 고도화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머거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로봇이 소재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생산성과 품질 인증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SK이노 E&S,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3억 kWh 전력 생산 가능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를 준공하며 민간이 이끄는 해상풍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해상풍력 생태계 확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단지는 자은도 연안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96MW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민간이 주도한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다. 9.6MW급 대형 풍력 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연간 약 3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동일 전력량을 석



전남해상풍력 1단지. /SK이노베이션 E&S

탄화력발전소로 생산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약 24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이며,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을 이루는 대표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기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중소 옴부즈만, 예산 2억 축소 여당 주도 삭감 '규제발굴' 위축

정부안보다 줄어든 31억800만원 민주당, 당초 4억 삭감 강력 주장 운영·연구비 축소로 활동폭 감소 업계 "규제개혁, 저비용 효과 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결을 총괄하며 갈길이 바쁜 가운데 내년 예산이 깎이면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감액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33억800만원에서 2억원(6.4%) 줄어든 31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 당시 30억 6600만원이었던 옴부즈만 예산은 올해 33억8200만원으로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줄어들게 됐다.

예산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옴부즈만 운영이 단순히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 중간 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운영비 4억1000만원을 감액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

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억원이 줄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애로 발굴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규제·애로 발굴→견의과제 분석 및 검토→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개선 권고 및 애로 해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당장 개선이 쉽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000여 건의 현장 규제 등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2%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비와 연구비 등으로 써야 할 지원단 운영비가 감소하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관련 연구비도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예산은 전문위원 인건비와 지원단 운영비가 사실상 전부다. 살림은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중심

으로 한 사무국 조직이 맡고 있다. 따라서 줄어든 2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직으로 월급 없이 수당만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만들어져 초대 이민화 옴부즈만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유명 무실한 규제개혁위원회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일 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 대회'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 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출범 초기엔 규제 개혁을 외치던 역대 정부가 모두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를 외면하더라"라며 뼈 있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재창업·회생 지원

중기부, "기업인과 나아가는 출발점" 내년 2000억으로 위기기업 지원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실패 경험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내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회생기업 등 위기장기기업에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파산 절차를 돋는 '패스트트랙'을 확대 운영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실패 경험한 기업인 지원에 더욱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포함한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내년 1월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초고속 기내망, 설치비 부담에 LCC '신중'

FSC는 스타링크 단계적 장착 돌입 LCC는 설치·운영비 부담 도입 미뤄 리스 기재 많아 개조 비용 리스크 커

한진그룹 항공사들이 스타링크 도입에 나서며 국내 항공업계에도 기내 초고속 인터넷 경쟁이 불붙었지만, LCC는 비용·구조·수익성이라는 삼중의 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발을 뗄지 못하고 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시장성마저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 5개 항공사는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B777-300ER과 에어버스 A350-900 기종이 우선 적용되며, 이르면 2026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가 스타링크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항공사들도 이미 스타링크 기반 기내 인터넷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 북미 주요 항공사는 일부 기재에서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일본 ANA·JAL 등 아시아 항공사들도 고속 기내 인터넷 확충에 적극적이다. 해외에서 연결 서비스가 빠르게 표준화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도 글로벌 수준에 맞춘 서비스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스타링크는 약 8000기의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최대 500Mbps의 속도를 제공해 기내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대한항공의 엔진 정비 공장에서 정비사들이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진그룹 항공사들은 2027년 말까지 전체 기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LCC가 처한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다. 스타링크 도입에 필요한 전용 안테나 설치 비용은 항공기 1대당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보유 대수가 40대 수준인 LCC의 경우 설치비만 약 200억 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위성망 사용료, 유지보수비, 개조 기간 운휴 손실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국내 LCC는 항공기 상당수를 리스로 운용하고 있어 개조 작업을 진행할 경우 리스 조건 변경이나 반납 시 원상복구 비용 등 추가 비용 리스크도 따른다. 이 역시 투자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된다.

실적 부진도 도입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제주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3883억 원, 영업손실 550억 원, 순

손실 602억 원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 역시 같은 기간 매출 1조2742억 원을 올렸지만 영업손실 2093억 원, 순손실 약 1247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도 재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타링크 도입이 단기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적자 상태의 LCC들이 대규모 설치 투자에 나서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FSC와 LCC의 사업 구조 차이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장거리 운항 비중이 높고 프리미엄 수요가 커 기내 인터넷 품질 향상이 곧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부가 수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LCC는 단거리 위주의 네트워크와 가격 민감 고객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스마트 자문委'로 中企 물류애로 해소

중진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가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스마트 물류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 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전문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항공·해상·내륙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수출 중소기업·물류 시스템 기업 대표, 국제통상·물류 분야 교수, 글로벌 플랫폼 임원 등 물류와 통상 전반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물류 지원체계 구축 방향 ▲중소기업 맞

춤형 물류 지원 방안 신규 발굴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현황 및 해소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2026년 말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인 스마트 트레이드허브가 준공돼 항공·해운·내륙을 연계한 통합 물류지원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물류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물류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트레이드허브는 중진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추진하는 협업 모델이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 역량강화 우수사례 21건 선정

소진공, 분야별 최고 득점자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진행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에서 르센도 김상현 대표(사업참여자·교육), 대유수산 김국영 대표(사업참여자·컨설팅), 비즈인사이트연구소 변종수 대표(컨설팅),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지원단체)이 부분별 최고 득점자로 우수사례 대상에 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대전 본부에서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의 우수사례 수상자와 유공 포상 대상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사업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컨설팅 터,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 고용 창출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 받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례 적정성, 우수성, 완성도, 충실했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사업참여자(교육) 7건 ▲사업참여자(컨설팅) 7건 ▲컨설팅 4건 ▲지원단체 3건 등 총 2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 ‘6G 핵심기술’ AI-RAN 검증 성공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

## KT·삼성전자 공동개발

6G 지능형 네트워크 출발점 평가 셀 간 끊김문제 줄고 안정성 향상

KT는 상용 통신망에서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RAN은 기지국이 단말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AI-RAN은 단순한 네트워크 최적화 수준을 넘어 초저지연·초고속·초연결을 구현하는 6G 지능형 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양사는 2023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엔비디아와의 디자인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RAN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검증은 경기도 성남 지역 상용 망에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이 AI-RAN이 적용된 네트워크를 이



KT·삼성전자 직원들이 AI-RAN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KT

용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셀(Cell) 간 이동 시 끊김 문제가 크게 줄어들었다. 유사한 이동 패턴을 가진 다른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도 함께 개선되면서 셀 전체의 네트워크 안정성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I-RAN이 실제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다. 기존 통신망은 셀 단위로 동

일한 설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KT와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품질 제공 방식을 도입했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설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넥슨, 지난달 온라인 관심도 1위 기록

주요 게임사 포스팅 수 조사 결과  
넷마블·엔씨소프트 순으로 뒤이어  
지스타 등 연말이슈로 정보량 늘어

넥슨이 11월 국내 주요 게임사 가운데 온라인 관심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그 뒤를 이었다.

데이터엔리서치는 11일 뉴스·커뮤니티·카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주요 게임사 포스팅 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게임 업계 내 임의 선정된 10개사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위메이드 ▲스마일게이트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 등이다.

넥슨은 2만8147건으로 관심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3665건) 보다 5518건(16.39%)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보량 최다 게임사로 조사됐다.

지난달 네이버 블로거 B는 ‘던전앤파이터’ 직업 선택 팁을 공유하는 글을 게시하며 ‘넷마블’이 가장 인기 직업이라고 소개했다. 애豌코리아 이용자 퍼는 넥슨 신작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m\*\* 역시 “출시 전 모호했던 작품이지만 출시 후 평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넷마블은 2만3011건으로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6건(9.86%) 증가했다. 커뮤니티 이용자 룰은 지스타2025 방문 후기를 통

해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현장의 투톱”이라며 넷마블 부스 참여 열기를 전했다. 네이버 블로거 나도 “매년 넷마블 부스는 꼭 방문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엔씨소프트는 2만2103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84건(57.66%) 증가하며 10개사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디시인사이드 사용자 임\*\*는 ‘아이온2’가 출시 이를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전하며 “접속 장애 발생 시 엔씨소프트가 빠르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크래프톤 1만7243건 ▲위메이드 9708건 ▲스마일게이트 8072건 ▲컴투스홀딩스 7575건 ▲네오위즈 6450건 ▲펄어비스 5885건 ▲데브시스터즈 2328건 순으로 집계됐다.

11월 게임사 전체 포스팅 수는 13만 5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550건)보다 1972건(1.53%) 증가했다. 데이터엔리서치는 “대형 게임들의 업데이트와 신작 일정이 몰리고 블랙프라이데이·지스타 등 연말 이슈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정보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LG U+, CDP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A’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LG유플러스가 2025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기관이다. 기업의 환경 경영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투자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만4000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 등을 수집해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분석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자가 태양광 발전 도입, 탄소중

립 목표 고도화 등 차별화된 탄소중립 추진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신업계 최초로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S1·S2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KSSB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도 강화했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 AI 기반 광고운영 지원 서비스 선봬

‘카카오모먼트 AI’로 경험 부족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집행 효율 ↑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광고운영 지원 서비스 ‘카카오모먼트 AI’를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모먼트 AI는 광고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광고 운영 경험이 부족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집행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설정과 성과 분석 과정을 AI가 대신 수행해 광고주는 캠페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광고주별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해 18점부터 100점까지 최적화 점수를 제공한다. 점수는 최근 성과 변화, 경쟁 상황, 소재 피로도 등을 종합해 산출하며, 점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실행 제안을 함께 제시한다. 광고주는 제안 내용을 북마크하거나 설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즉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예산, 클릭률, 전환율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경쟁 광고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업종 내 평균 대비 성과 수준은 분위 단위로 제공돼, 광고 경험이 적은 사업자도 객관적으로 성과를 파악하고 예산 배분과 소재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고객 행동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광고 인지 이후 방문, 고려, 전환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 퍼널로 분석해 이탈 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연령대와 관심사, 선물하기·톡딜 이용 패턴 등 행동 데이터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K-익명성 기준을 적용해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네이버, 디지털 보증서로 안심구매 강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 ‘네이버 컬렉션’  
가품·사칭 위험 줄이고 신뢰도 높여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스페이스X’ 기업가치 4배 껑충

## 미래에셋, 선제투자 전략 적중

비상장 초기 단계에서 투자 결정  
10배 평가이익도 가능한 상황  
‘코인베스트 전략’ 대표사례 거론

일본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중후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비상장 초기 단계에서 투자한 미래에셋그룹의 전략적 배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약 300억달러(약 44조원)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내년 중후반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1조5000억달러(약 2206조원)로, 사우디아람코의 2019년 상장(290억 달러)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내부자 지분 매각 당시 약 4000억달러로 평가됐으나 이번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네 배까지 뛰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스페이스X 가치가 1300억~1500억달러 수준이던 2022~2023년 총 2억78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목표 가치가 현실화될 경우 10 배 이상 평가이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이스X 상장 추진의 배경에는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확장과 차세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원형사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대 발사체 ‘스타십’ 개발이 있다. 올해 매출은 약 150억달러, 내년 매출은 220 억~240억달러로 예상된다.

이처럼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급등하고 성장성이 재확인되면서, 조기 투자자로 참여한 미래에셋의 투자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먼저 검증한 뒤 고객과 함께 투자 기회를 공유하는 ‘코인베스트(Co-invest)’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미래에셋의 스페이스X 투자 전략은

그룹의 글로벌 투자 철학과 PWM 고객 대상 대체투자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김회중 미래에셋증권 PWM 부문 대표는 “회사가 먼저 검증하고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뒤 고객이 동일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며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성장 기업은 회사의 실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코인베스트(co-invest)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 투자는 코인베스트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스페이스X 투자 성공은 미래에셋이 글로벌 비상장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성장 기업을 발굴해온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은 이번 스페이스X 사례를 계기로, ‘차기 스페이스X’ 발굴을 위한 해외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글로벌 경영 관리부문 산하에 ‘차이나전략팀’을 신설하고 중국을 별도 전략 시장으로 분리했다. 상하이·베이징 사무소와 협업해 현지 신성장 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AI·우주항공·반도체 등 첨단 제조 분야의 초기 성장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로봇株 연일 강세… 현대오토에버 이달 48% 급등

주요국 로봇산업 육성 팔 걷어  
車 등 관련업종 리레이팅 가능성도

한·미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조 속에 로봇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주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로봇·자율주행 기대감이 완성차 업종으로 확산되며 자동차주의 재평가(리레이팅) 가능성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대오토에버는 48.02% 급등했다. 지난 8일 장종에는 30만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달 초 19만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30만원 선까지 터치한 것이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 내 소프트웨어 계열사로 로봇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로봇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도 7.74% 상승했으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로봇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도 8.05% 올랐다. 이외에도 해성에어로보틱스(12.73%), 로보스타(9.58%), 로보티즈(29.12%), 아이로보틱스(37.73%)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 주는 연말·연초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계절성이 있고, 올해도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로봇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와 로봇은 결국 기계의 카테고리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의 한 축으로 자동차 부품

사들의 로봇 부품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과 자동차의 커플링 현상도 목격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로보틱스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은 테슬라 옵티머스(Optimus)와 현대차(Atlas)의 아틀라스를 꼽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도 기존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기술 기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그룹 전체 매출의 20%를 로보틱스 분야에서 창출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자동차와 로봇 협력의 모멘텀 강화 기조로 같은 기간 현대차(13.00%), 현대모비스(16.48%), 기아(7.71%)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 거래소, ‘SK하이닉스·SK스퀘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코스피 대형주 등 경고 조치 확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두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종목의 종기가 지난해 12월 10일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15

일간 시세 영향력이 큰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일 이상 기준치에 해당한 점도 투자경고 사유로 판단했다.

투자경고가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 매수는 불가능해진다. 지정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급등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도 투자경

고조치로 거래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 대형주로까지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끈다. 이날 기준 코스피200 내에서 SK하이닉스(시총 2위), 두산에너빌리티(8위), SK스퀘어(14위), 현대로템(33위) 등이 모두 투자경고 종목에 둘어 있다. 코스피200 시가총액의 약 20%가 경고 지정 상태인 셈이다.

/허정윤 기자

##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외국인 매수 18조 ↑

금투협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전반적으로 거래 확대 흐름 보여

<2025년 11월말 국고채 금리 현황>

국고채	금리
1년	2.517%
2년	2.835%
3년	2.991%
5년	3.176%
10년	3.344%
20년	3.313%
30년	3.22%
50년	3.172%

/한국금융투자협회

매수해 전월 대비 매수 규모를 늘렸다.

외국인 매수세는 11월 급증했다. 외국인은 총 20조4000억원을 순매수해 전월 대비 18조원 넘게 늘었다. 환율 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정거래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잔액은 329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단기금리 지표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월 말 CD 금리는 전월 대비 25bp 오른 2.80%를 기록했다.

전문투자자 전용(QIB) 시장에서는 새로 7건, 1조3226억원이 등록되며 누적 등록 규모가 199조4000억원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삼성자산운용, 달러 파킹형 ETF 수익률 1위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1개월 1.7%, 3개월 7.2%, 6개월 10.5%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5월 상장한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가 국내 상장된 달러 파킹형 ETF 중 1개월 1.7%, 3개월 7.2%, 6개월 10.5% 달성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미국 초단기 안전자산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미국 머니마켓 ETF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직접 미국 머니마켓에 투자할 수 있으며, ETF 한 주의 가격을 약 10달러 수준으로 책정해 고객이 수익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미

국 중앙은행(Fed)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 연 3.50~3.75%가 됐음에도 한국 기준금리(연 2.50%)보다 높아 투자 매력이 높다.

총 보수도 연 0.05%로 동종 달러 단기자금 ETF 보수 대비 낮은 편이다.

/신하은 기자

##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순매수 4조 돌파

###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난해 이어 개인 투자자 최다 선택

미국 투자 ETF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4조원을 돌파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3조 554억 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1위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ETF에 올라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에도 같은 기간 1조 1204억원의 개인 순매수

가 유입됐다. 해당 ETF 2종의 총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총 4조원을 넘어서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된 동종 펀드 대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대표 지수 + 장기 분산 투자’ 전략이 자산 형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근 미국 증시가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 계좌에서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며 국내 해외 자수 ETF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 한전, HRD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인적자원개발)

## 美·유럽·韓 '3대 최고상' 석권

중장기 HRD 전략의 성과 입증  
인재상 P.O.W.E.R 전사 적용  
신성장 인재 양성체계 구축  
고졸 육성 확대 등 포용 강화  
DX 기반 교육혁신 글로벌 인정



한국전력이 지난 10일 한국HRD협회 주관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탁경민 한전 인사처 차장, 이정호 한전 인사처 부장, 엄준하 한국HRD협회 회장) /한전

gy & Solution Leader' 비전 달성을 위해 5개년 중장기 H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육을 미래 성장의 전략적 투자로 자리매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새롭게 정립한 인재상 'P.O. W.E.R(Passionate·Open-minded·Wise-thinking·Ethical·Responsible)'을 채용·평가·교육 등 인사 전반에 일관되게 연계한 HR 전략, '학사과정·전문자격·기술경영MBA'로 이어지는 신성장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이 주목받았다.

고졸 직원 대상 '에너지 신기술 융합 학과' 학사과정 신설도 호평을 받았다. 고졸 직원의 직무 역량을 대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포용적 인재육성 모델을 제

시한 사례라는 평가다.

디지털전환(DX) 기반 교육 혁신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초실감(VR) 안전훈련 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였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을 개발해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미·유럽을 아우르는 'HRD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AI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재 육성을 미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지속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HRD를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이끌 최고의 핵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몽골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시동

산업부, 중장기적 핵심광물 확보 기여  
울란바토르에 희소금속센터 개소  
핵심광물 분석·기술교육 등 추진

산업통상부가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내 '한-몽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업부 무상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3~2027년까지 총 98억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 한다.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와 한국 산업통상

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베트남·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지질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며, 텅스텐·몰리브덴·리튬 등 몽골 내 부존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 기술 교

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돋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해 몽골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남부발전, 품질혁신 공로로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전력그룹사 중 유일 우수회원사 선정  
품질경영·설비 신뢰도 개선 성과 인정  
ESG·디지털 기반 혁신 확대 추진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9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전력그룹사 중 유일하게 '2025년 우수회원사'로 선정돼 한국표준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회장상은 산업현장에서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회의 회원사를 발굴해 그

공로를 포상하는 상이다.

남부발전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 속에서도 한국품질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품질 혁신을 추진하고, 품질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발전설비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품질 분임조 활동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신규복합발전소 건설 기자재 품질검사 표준화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시스

템 구축 등 전사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영재 남부발전 발전처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한 결과이자, 우리 회사의 품질경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 ESG 기반 품질경영 실현,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1~10월까지 나라살림 86조 적자 누적

기재부, 관리재정수지 발표  
국가채무도 한 달 새 16조 ↑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올해 1~10월 기간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또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에 비해 16조 원 넘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전년대비 42조 1000억 원 증가한 54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55조 6000억 원 늘어난 584조 8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75조 7000억 원 적자)보다 10조 5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20년(90조 6000억 원), 2022년(86조 3000억 원)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1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30조 7000억 원으로 37조 1000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6조

4000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83조 7000억 원으로 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75조 3000억 원으로 9월 말(1259조 원)보다 16조 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채 잔액은 1273조 8000억 원이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5.5%이다. 2차 추경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 100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별다른 세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거나 10월에 부가세 수입 등이 들어오면서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지출이 예산대로 집행된다면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수준인 111조 6000억 원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외국인 한우 미식투어·쿠킹클래스 호응

한우자조금, 체험형 홍보 성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 '한우 미식투어 및 쿠킹클래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내한 외국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한우의 국제경쟁력 및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K-푸드 열풍 속에서 한우가 한국의 고급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고유한 품미와 문화적 가치를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 의미를 뒀다.

서울시 관광사업과와 협력해 서울미식주간과 한우먹는날 시기에 맞춰 진행된 한우미식투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에게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 죽산 1번지인 마장동과 연계한 투어 코스를 비롯해 한우 전문 조리장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한우 등급·부위별 특징 설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아울러 10월 하순부터 12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한우 쿠킹클래스

에서는 한우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등 한우를 활용한 대표 한식 메뉴를 직접 조리하는 실습이 이뤄졌다.

자조금에 따르면 외국인 참가자들은 투어 및 쿠킹클래스 현장을 활용한 사진·영상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대비 총력

기후부, 수출기업 대응력 점검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3주 앞둔 11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제6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EU가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

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 CBAM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교원 98% “악성민원 맞고소제·국가책임제 즉각 도입해야”

강주호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 추진 촉구  
교권 보호 법제 개정 체감도 낮아

전국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7.7%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95%에 육박하고 수업일 기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교권 회복이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서울 중구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국회에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초등교원 4명 중 3명이 정부 정책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교실은 갈등과 불신이 쌓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메트로신문 DB

이번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11월26일~12월4일)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받은 정책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 활동 소송 국가책임제(97.7%)였다. 교원 보수·수당 인상(97.6%)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강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확인됐음에도 ‘아니면 말고’식 민원 제기로 교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라며

“악의적 민원이 드러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체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지도를 하다 소송에 휘말려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소송 종료 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국가책임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최근 발의된 ‘몰래녹음·청

취허용법’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가 압도적으로 커졌다. 설문 응답 교사 95.5%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과 남발되는 신고로 이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다른 주요 요구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전면 이관(96.0%)’이 꼽혔다. 교사들은 채용·시설관리·회계·정산 등 교육과 직접 무관한 업무가 수업준비 시간과 교육 품질을 잠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학교가 행정업무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며 “채용·시설·복지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법제 개정에 대한 체감도는 긍정 44.9%, 부정·유보 55.1%로 걸렸다. 특히 초등교원은 긍정 응답이 39.6%에 그쳤고,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32.2%만이 긍정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도 실제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

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젊은 교사일수록 민원·분쟁 대응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낮은 체감도의 배경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역시 전체 교원의 70.8%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준비 부족 우려가 커졌다. 제도 핵심 운영자인 교장·교감 중 46.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으로 ▲교실 내 몰래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 확보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교사 보호 투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절박함은 지금의 제도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라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SKY 자연계 지원권 영어, 1.7 → 2.6등급으로 급락

주요 10개 대학도 2.0→2.6등급  
상위권 인문계는 하락폭 크지 않아  
대학별 영어비중 따라 유불리 확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 지원권 영어 등급이 전년도 1.7등급에서 올해 2.6등급으로 떨어지고,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 지원권도 평균 0.6 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의 변화 폭이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자연계 상위권에서만 영어 등급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영어 난도가 자연계 상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종로학원이 2025·2026학년도 동일 시점 기준 지원 5만6860건을 표

본 분석한 결과, 서·연·고 자연계 지원권 수험생들의 수능 영어 평균 등급은 전년도 1.7등급에서 올해 2.6등급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 지원권 표본도 2.0등급에서 2.6등급으로 하락했다. 자연계의 경우 주요 대학별 영어 등급 변화는 ▲서울대 1.7→2.6등급 ▲중앙대 2.2→2.8등급 ▲고려대 1.8→2.6등급 ▲한양대 2.0→2.6등급 ▲경희대 2.2→2.4등급 ▲서울시립대 2.4→2.1등급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권 인문계 지원권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서·연·고 인문계 지원권 영어 등급은 전년도 1.8등급에서 올해도 1.8등급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 지원권 역시 2.0등급

에서 2.2등급으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을 보였다. 대학별로 인문계는 서울대의 경우 1.8→1.8등급으로 동일했고 ▲중앙대 2.2→2.0등급 ▲고려대 1.9→2.1등급 ▲한양대 2.0→2.3등급 ▲한국외대 2.1→2.7등급 ▲경희대 2.2→2.8등급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처럼 자연계 상위권의 영어 하락폭이 인문계보다 큰 점은 올해 정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학별로 영어 반영 비중과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수탐 성적

이 같은 점수대 꼬리표를 가진 수험생이 라도 대학별 유불리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어·수학·탐구 상위 점수대를 갖고

주요 대학에 지원 가능한 자연계 수험생들이 올해 영어에서 예년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영어 비중에 따라 대학별 정시 유불리가 예년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자연계 상위권에서 영어 하락폭이 커던 만큼,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이 올해 정시 지원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와 정시 간 상호작용 역시 올해는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능최저 충족에서 대거 이탈하고, 상대적으로 상위권 비중이 커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난도가 높을수록 상위권은 등급 방어가 가능한 반면, 중간권은

한 과목만 무너져도 최저 충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충족한 고득점자 비율이 예년보다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수시 단계에서 상위권 비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수시에서 얼마나 많은 상위권이 빠져나가는지에 따라 정시에 남는 점수대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대학별 영어 비중 차이에 따라 정시에서의 유불리가 예년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원 전략을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시 최초합격자는 12일 발표되며, 등록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추가합격은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정시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 국무총리 표창

정책설계 과정에 청소년 직접 참여

고양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양시는 청소년 참여 확대부터 복지·진로 지원, 지역 특화사업까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정책 철학을 토대로, 청소년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해 왔다.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제안창작소 등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실제 조례 개정과 시정 반영으로 이어지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역시 돋보였



고양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다. 고양시는 전국 규모로 성장한 청소년 포포먼스 대회를 정례화하고, 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의 전문기관 및 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농구·풋살 등 전문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며 청소년 활동의 범위를 확장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역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진로 분야에서는 ‘청소년 생애 디자인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진로교육을 추진했다. ‘청소년 인생 스트트업’, ‘Lab to Market’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체험과 멘토링, 창업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진로 설계 역량을 키웠다. 이 같은 성과는 교육부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등 외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국민대 개발 위성, 누리호 6호 탑재 확정

초소형 큐브위성… 내년 6월 발사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차세대통신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박준석)에서 만든 초소형 큐브위성 ‘KMU ET-02’가 2027년 6월 중순 발사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체에 탑재된다.

11일 국민대에 따르면, KMU ET-02는 6U급 초소형 큐브위성으로, 지상 약 500km의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위성에는 최신 ‘의미 중심(Semantic) 차세대통신 아키텍처’가 적용되며, 기내(온보드)에는 Edge AI 기반 의미추론 모델이 탑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누리호 6차 발사 부담 재위성 공모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위성을 선정하고, 국내 위성 개발 역량과 국산 부품 활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민대와 한국항공대, 쿼터니언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KMU ET-02’는 산림·재난·환경 감시 임무와 AI 기반 위성 운영 기술을 동시에 실증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정은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만든 초소형위성이 공공·연구·교육 목적의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성은 단순히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스스로 주요 객체나 이상 징후를 먼저 분석·요약한 뒤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상국에 전송하는 ‘의미 중심(Semantic) 위성통신체계’를 겸비하도록 설계됐다. /이현진 기자

# 급식업계, 디저트까지 책임진다 커피·베이커리 등 서비스 확장

현대그린푸드 사내카페 사업장 확대  
삼성웰스토리 스페셜티 브랜드 협업  
아워홈 '카페 그랑' 인기 몰이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사내 카페' 경쟁이 새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내식당이 식사만 제공하던 공간에서 벗어나 카페 기능까지 품은 것.

점심 후 외부 카페로 나가던 직장인들의 동선이 경기 침체에 따라 식사와 커피, 디저트까지 내부에서 모두 해결되는 '원스톱 소비'로 바뀌자 사내 카페 메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흐름을 가장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곳은 현대그린푸드다. 올해 1분기 기준 사내 카페 운영 사업장은 119곳으로 2020년(41곳) 대비 약 세 배 늘었다. 매출도 같은 기간 13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수주한 구내식당 가운데 30% 이상이 사내 카페를 함께 도입한 형태다.

현대그린푸드는 2022년 사내 카페 전담 조직을 꾸려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을 강화했다. 전담 인력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 보유자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

라 세분화된 메뉴 전략도 적용 중이다. 제조업 현장처럼 30~50대 남성 비중이 높은 사업장엔 '퀵서비스 음료'를 기본 옵션으로 두고, 외근이 많은 영업 조직 중심 오피스 권역엔 '해장 아메리카노'와 숙취 해소 음료를 배치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공장엔 코코넛 라테, 라시 등 동남아·인도풍 메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스페셜티 브랜드 협업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프린조·인텔리전시아' 등 유명 커피 브랜드 원두를 활용한 팝업 운영, 시즌 한정 협업 음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해에는 캐리터 '헬리콥'과 협업한 라테·딸기라테 등을 선보이며 사내 카페의 브랜드 경험을 넓혔다.

CJ프레시웨이도 최근 3년간 매년 약 10개씩 사내 카페를 늘리며 연평균 21%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아워홈은 카페·베이커리·매점 등 코너형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체 구내식당의 절반 이상에서 테이크아웃 코너를 운영하며, 스내킹 수

요 확산이 매출 성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아워홈이 운영하는 '카페 그랑'에서는 파티시에가 직접 반죽해 굽는 베이커리 제품을 1500~2000원대에 판매한다.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보장돼 고객사들에게 인기다. 건강·웰빙 트렌드에 맞춰 저당, 통곡물, 단백질 강화 제품 등 기능성 베이커리 라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는 앞으로의 단체급식 경쟁력을 기반기 있는 식사와 카페·디저트 품질 조합에서 찾고 있다. 사내 카페는 더 이상 복지 차원의 옵션이 아니라 수주 경쟁과 매출 확대를 좌우하는 전략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무더위나 장마 등 계절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커피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사내 카페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제는 구내식당을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종합 푸드 서비스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메뉴·브랜드 협업 등 세분화된 운영 역량이 시장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면세점이 알리페이플러스를 초청해 중국·홍콩 기자단과 FIT 전략 공유했다. /신세계면세점

## 신세계면세점, 알리페이플러스 협력 강화

中 등 외국인 고객 편의·혜택 제고

신세계면세점이 중국 개별 관광객(FIT) 공략을 위해 글로벌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플러스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9일 알리페이플러스와 함께 중국·홍콩 주요 매체 기자단을 본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FIT 시장 회복세에 맞춘 마케팅 전략과 협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단은 간담회 직후 명동점을 방문해 알리페이와 페이페이(PayPay)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연을 체험했다.

세계면세점의 쇼핑 환경을 직접 체험했

다. 신세계면세점은 알리페이플러스 네트워크를 통해 21개 해외 전자지갑 서비스를 연동, 외국인 고객이 자국 결제 수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일 알리바바 산하 여행 플랫폼 '플리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여행(플리기)-결제(알리페이)-쇼핑(신세계면세점)'으로 이어지는 알리바바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

곽종우 신세계디에프 마케팅담당은 "알리페이플러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FIT 고객에게 쇼핑 편의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면세 쇼핑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SPC그룹, 음성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

충북도·음성군과 투자 MOU 체결  
첨단 기술 기반 위험요소 최소화

SPC그룹이 충북 음성에 3000억 원을 투입해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립한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AI·로봇 자동화·IoT 센서 등을 적용한 첨단 생산시설로 그룹 내 최대 규모다.

SPC그룹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음성군과 '안전 스마트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병국 음성군수, 도세호 SPC그룹 사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SPC그룹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음성군과 '안전 스마트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병국 음성군수, 도세호 SPC그룹 사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기대된다.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SPC그룹은 신공장을 통해 기존 생산량을 분산해 전체 제조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WEF·맥킨지가 선정하는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 등재도 추진한다.

충북 음성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SPC 생산·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높아 최적 입지로 평가됐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도 고려됐다.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은 "이번 신공장은 변화와 혁신, 안전 중심 경영의 분기점"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공장으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배민아카데미, 외식업주 매출증대 이끌어

AI 기반 가게 운영 효율화 교육 진행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무료 장사 학교 '배민아카데미'가 올해 외식업주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이끌어내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1일 배민아카데미의 2025년 성과를 공개하며 연간 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6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배민아카데미의 누적 수강생 수는 33만 6949명, 누적 교육 횟수는 4343회를 돌파했다.

올해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가게 운영 효율화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ChatGPT 활용법'과 '배민AI 장사스쿨' 등 관련 강의에만 1000여 명의 사장

님이 몰리며 최신 트렌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실질적인 매출 상승효과도 확인됐다. 전문가가 가게를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민가게 성장컨설팅' 참여 가게들은 평균 주문 수가 3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메뉴 사진을 무료로 활용해 주는 '배민사진관' 경기편 참여 가게들 역시 평균 메뉴 주문 수가 2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종욱 기자

## CU, '베이크하우스405' 신상품 3종 출시

CU가 프랑스 유명 유제품 브랜드 '페어장브레통'과 손잡고 차별화 베이커리 브랜드 '베이크하우스405'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최근 5년간 빵 가격 상승률이 38.7%에 달하는 등 심화된 '빵 플레이션'에 대응해 기획됐다. CU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의 정통 브랜드 페이장브레통의 프리미엄 버터를 사용해 편의점 빵의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

출시되는 상품은 '몽블랑 데니쉬(3500원)', '찹쌀 크루찌(3800원)', '스윗브리오쉬(3800원)' 등 3종이다. CU는 베이크하우스405 전 상품을 자체 커피인 'get 커피'와 함께 구매 시 1000원 할인해 주는 행사를 상시 진행한다.



CU 모델이 '베이크하우스405'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CU

한편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는 1000~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2700만 개를 돌파했다.

/손종욱 기자



천혜의 자연과 함께 달리는 환상적인 라이딩! **2026**  
**영월 메디오픈도**  
**2026 YEONGWOL MEDIOFONDO**



**2026. 3. 29 SUN 09:00**

08:00 영월 동강체육공원 집결

**접수기간**

2026년 1월 6일(화)  
10:00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참가부문**

사이클 / MTB

**참가인원**

선착순 2,000명

**코스거리**

78Km(메디오픈도)

**참가비용**

80,000원

**참가신청**

[yowo-mfond.com](http://yowo-mfond.com)

**관련문의**

02-6743-33304

◎ 대회관련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yowo-mfond.com](http://yowo-mfond.com)

주최 (사)영월군체육회  
Yeong-wol Sports Council

주관 YEONG WOL  
Mediofondo

후원 영월군  
YEONGWOL COUNTY

영월군의회  
YEONGWOL COUNTY COUNCIL

영월경찰서  
YEONGWOL POLICE STATION

영월소방서  
Yeongwol Fire Station

영월문화관광재단  
Yeongwol Culture & Tourism Foundation

이투데이

영월군  
자연기행

동강시스타

# 홈파티·완구·K-굿즈까지… 유통가, ‘연말특수 잡기’ 활발

## 고물가 속 소비 부담 완화

홈플러스 연말맞춤 대형세일 가동 롯데마트 홈파티 먹거리 할인 확대 이마트 완구·K-굿즈 프로모션 강화 갤러리아·신세계 체험·미식 행사 11번가·롯데온 선물·E쿠폰 수요 공략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유통업계가 연말 종력전에 돌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은 대규모 할인 행사와 체험형 콘텐츠로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 모으고, 이커머스는 세분화된 취향을 겨냥한 선물 큐레이션으로 틈새 수요 공략에 나섰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연말 홈파티 먹거리와 불거리를 앞세워 오프라인 수요 잡기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 채널을 통합한 대규모 세일 ‘원터 홈플린’을 개최한다. 여름철 대표 행사인 ‘홈플린’을 겨울 시즌에 맞춰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딸기·한우 등 신선식품과 홈파티 용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특히 18일부터 나흘간은 ‘몰빵데이’를 열고 패션·리빙 브랜드 할인과 사은품 증정으로 쇼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이달 17일까지 ‘원터 해피 딜’ 행사를 열고 홈파티용 먹거리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연말 모임 수요를 겨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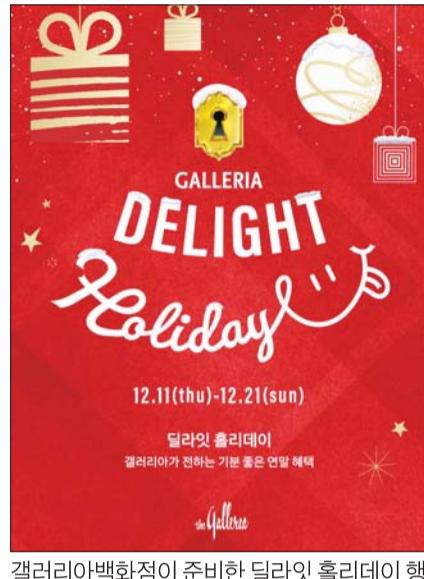


홈플러스가 진행하는 ‘원터 홈플린’ 티징 포스터. /홈플러스

해 모둠회 플래터, 립·훈제삼겹 등이 포함된 BBQ 플래터 등 즉석조리 식품을 강화했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 용품도 최대 50% 할인하며 구색을 갖췄다.

이마트는 1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티’를 열고 문·완구 3천여 종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방한 관광객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한복을 입은 미미 인형, 전통 촛대 만들기 등 ‘K-굿즈’를 대거 선보인 점이 눈에 띈다. 인기 캐릭터 ‘캐치티니핑’과 레고 등 아이들 선물 수요가 높은 품목에 혜택을 집중했다.

백화점 업계는 단순 할인을 넘어 체험과 미식을 무기로 내세웠다. 갤러리아백화점은 11일부터 21일까지 ‘딜라잇



갤러리아백화점이 준비한 딜라잇 홀리데이 행사 포스터. /갤러리아백화점

홀리데이’를 진행한다. 대전 타임월드점에서는 한화 이글스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기념해 오는 16일 정우주·문현빈 선수 팬 사인회를 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서울 명품관에서는 미술 랭 1스타 손종원 세프와 협업한 김부각, 니시무라 베터샌드 등 유명 디저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하우스오브신세계’에서 내년 1월 11일까지 ‘홀리데이 바자’를 연다. 공예 작가들과 협업해 제작한 전통 종(鐘)과 테이블웨어 등 ‘한국의 복(福)’을 재해석한 차별화된 선물 상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공략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는 때이른 한파에 맞춰 내년 1월 7일까지 ‘슈퍼세일’을 진행, 패딩과 코트 등 겨울 아우터를 최대 50% 할인하며 재고 소진과 매출 확대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계는 선물하기 수요에 집중하고 있다. 11번가는 이달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프로모션을 열고 장난감과 뷰티, 디지털 기기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배송 걱정 없는 E쿠폰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파스쿠찌, 뚜레쥬르 케이크 교환권과 빙수 식사권 등을 특가에 선보여 실속파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롯데온도 이달 17일까지 ‘홀리데이 선물마켓’을 열고 나이키, 레고, 에스티로더 등 인기 브랜드의 홀리데이 에디션을 큐레이션 해 선보인다. 키즈, 뷰티 등 카테고리별로 선물하기 좋은 상품을 염선하고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1번가 고광일 영업기획그룹장은 “불경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선물 수요’ 공략을 강조했고, 홈플러스 김상진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고물가 속 연말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손종숙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혼 클리너’

미세브러쉬로 깨끗하게

동아제약은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혼 클리너’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토탈 구강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그린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혼 전용 클리너다.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혼 클리너’는 144개의 미세 브러쉬가 혼 표면 돌기 사이의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력 있는 TPE 브러쉬 소재를 적용해 혼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밀착되며, 예민한 혼 표면에 상처 없이 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 전체를 한 번에 감싸는 와이드 헤드 구조로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사용 시의 구역감이나 식도 자극을 최소화했다.

신제품은 동아제약 생활 공식 브랜드 스토어와 동아제약 공식몰(Dma II), 쿠팡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양치 후에도 금세 올라오는 입냄새나 백태 제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부드럽고 편안한 세정이 가능한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혼 클리너를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 역대 최대 1640억 현금배당

비과세 재원 활용해 실질 배당 확대 무상증자 신주 포함… 수익률 상승 자사주 매입·소각 포함 주주환원 강화

셀트리온그룹은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올해 배당 계획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우선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약 164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배당 규모는 발행주식총수(약 2억 3096만주)에서 자기주식(약 1235만주)을 제외한 약 2억 1861만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올해 미국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현금배당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앞서 추진한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와 올해 진행된 무상증자로 인해 실

질 배당 가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자본준비금 약 62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감액배당을 위한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배당에 활용하면 주주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실질 배당은 더욱 증가한다.

지난 5월에는 주당 신주 0.04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해 약 4%의 주식배당 효

과를 더하게 됐다. 올해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도 이번 현금 배당 대상 주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이 기간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라면 실수령 배당금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올해 셀트리온이 매입한 844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포함해 셀트리온그룹 차원의 매입 셀트리온 주식은 총 1.9조 원에 달하며, 셀트리온이 소각한 자주주는 900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자주주 소각 규모에 이번에 결정된 현금 배당까지 합하면 셀트리온이 올해 주주친화정책 실현에 투입한 재원은 단순 계산으로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아쏘시오, 통합보고서 LACP 어워드 대상

### ISSB 기준 적용 높이 평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솔이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쟁대회로 글로벌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한다. 전 세계 기업 및 기관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총 6개 평가 항목 중 ▲첫인상 ▲전체 내리티브 ▲디자인 ▲메시지 명확성 ▲인지된 관련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 총점 99점을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보고 방식을 적용해 중대성 평가 기반의 전략, 목표, 지표를 설계하고,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참여작 중 가장 우수한 100개 보고서 중 3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0년(16위), 2021년(9위), 2023년(5위)에 이어 올해 총 4회 대상 수상이라 는 기록을 세우며,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달 이용고객 대상 추가혜택 지원

스타벅스코리아가 별 쿠폰 자동 발행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12월 한 달 동안 보너스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달 리워드 프로그램 내 별 쿠폰 자동 발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고객이 스타벅스 앱에서 쿠폰 자동 발행을 설정하면, 별 개수가 충족된 다음 날 자동으로 생성되는 식이다. 골드회원은 별 8개 또는 12개 쿠폰, 그린회원은 별 8개 쿠폰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 회원이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순항 중이다. 가장 많이 자동 발행 설

정된 쿠폰은 별 8개로 교환 가능한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브루드 커피 무료 쿠폰’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스테디셀러 음료들인 만큼, 고객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호응에 힘입어 무료 음료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별 쿠폰 자동 발행 서비스’를 통해 첫 쿠폰을 받은 경우 다음 날 제조 음료(Tall) 무료 쿠폰 1장을 증정한다. 또한, 12일부터 31일까지 자동 발행 쿠폰을 1회 이상 받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 발행 설정을 유지하면 내년 1월 중 카페 아메리카노(Tall) 무료 쿠폰 1장을 선물 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국맥도날드

### 행복의 버거 주간 성료

전국 아동센터에 5882인분 전달

한국맥도날드가 ‘2025 행복의 버거 주간’ 행사를 지역사회에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의 버거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 소방관, 군인 등 우리 주변의 영웅들과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맥도날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나눔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정해진 기간 내 더 많은 이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의 순간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국 87개의 매장이 참여했으며, 매장 인근의 172개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총 5882인분의 메뉴를 지역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행복의 버거 주간’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3000여 개의 메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게 된 영향력을 확산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목표로 ‘행복의 버거 주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스토어**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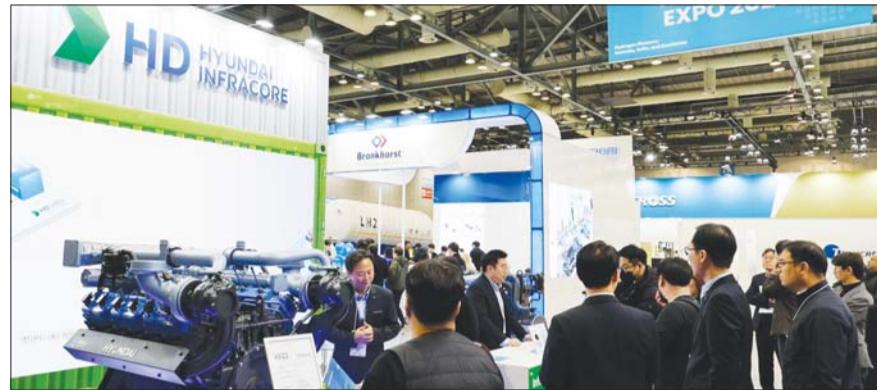
# HD현대인프라 수소엔진, WHE 2025 '최고제품'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  
HX12·HX22, 베스트 퍽 선정

HD현대인프라코어의 수소엔진 'HX12'와 'HX22'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열린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이하 WHE)'에서 최고 제품에 선정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WHE 조직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WHE 2025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상을 차지한 '베스트 퍽'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11L급 차량용·발전용 수소엔진 'HX12'와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세계 최대 규모 22L급 수소 엔진 'HX22'다.

'HX12'는 지난해 WHE의 전신인 'H



WHE 2025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에서 베스트 퍽에 선정된 HD현대인프라코어 부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2MEET' 행사에서도 대상을 받은 제품으로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X22'는 V형 12기통 구조로 최대 출력 600kW(816마력), 연속 출력 477kW(649마력)의 성능을 확보해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최우수상인 '엑설런트 퍽'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동형 수소 충전소'가 선정됐다. 트럭 또는 대형 트레일러에 수소압축기·저장용기·냉각기·충전기 등

수소 충전 핵심 설비를 탑재한 형태로, 700bar 고압 충전이 가능한 신형 충전소이다.

'이동형 수소 충전소'는 좁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도심지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 융복합 충전소 형태로 도입되어 혼잡 시간대 충전을 위한 대기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훈 WHE 2025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를 통해 주목받는 혁신 기술이 더욱 빠르게 산업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조직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 수소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롯데월푸드, 1형당뇨병환우회와 MOU

롯데월푸드는 사단법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이하 환우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롯데월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를 통해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1형 당뇨병 환우들에게 맛있는 즐거움을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월푸드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나눔愛찬'

하나금융그룹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나눔애(愛) 찬'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愛 찬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주금공, 주거취약청년 주거안정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 지역 주거취약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주택금융공사 임직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인 'Happy Feet with HF'를 통해 조성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GS칼텍스, 여수 청소년 진로탐색 도와

문화예술 기반 심리·정서 지원

GS칼텍스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여수 중앙여자고등학교, 부영여자고등학교, 진성여자고등학교 등 여수 지역 청소년 62명을 대상으로 '2025 GS칼텍스 마음톡톡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음톡톡'은 GS칼텍스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예술기반 심리·정서 지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회복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정유·석유화학 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감하기 바란다"며 "예술을 통한 정서적 회복과 자기 탐색이 결합된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워크숍에서는 색·질감·형태를 활용해 자신만의 '섬'을 표현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관계 확장의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GS칼텍스는 문화예술·스포츠·다문화 인재양성을 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를 통한 정서적 회복 및 사회적 소통의 기능에 주목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유·석유화학 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감하기 바란다"며 "예술을 통한 정서적 회복과 자기 탐색이 결합된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 희망디딤돌 10년, 청년 5만명 지원

인천센터 개소식·10주년 기념 행사  
자립준비청년에 주거·취업 지원

삼성이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희망디딤돌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10년 만에 완성했다.

삼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의 16번째 센터인 인천센터 개소식과 희망디딤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희망디딤돌은 현재 전국 13개 지역, 총 16개의 희망디딤돌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천센터 개소를 통해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기술과 지혜'를 배우는 안전한 유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정식품,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40시간 근무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오리지널 1등 두유 베지밀을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식품은 이

번 인증으로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식품은 임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한편, 만 4~6세 자녀 양육 지원금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 시설 운영 등 폭넓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박수현 팀장, 공정한 홍보문화 조성

광동제약이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언론홍보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와 바른언론시민행동으로부터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언론인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참 홍보인 시상식에서 박수현 광동제약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올해의 참 홍보인'으로 선정했다. 올해 새로 제정된 본 상은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원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박수현 팀장은 언론 대응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홍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박수현 팀장은 9일 바른언

자 경제뉴스 폐해와 대책

5.12.9(화) 10:00 ~ 11: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강당 주최 : (사)바른언론시민행동



대한언론인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참 홍보인 시상식에서 박수현 광동제약 커뮤니케이션팀장(오른쪽)을 '올해의 참 홍보인'으로 선정했다.

론시민행동이 수여하는 '올해의 바른언론 홍보대상'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언론환경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은 "투철한 사명감과 원칙에 입각해 대언론 홍보에 앞장서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일홀딩스·한일시멘트, 자원순환 실천

한일홀딩스와 한일시멘트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ESG 경영에 나섰다. 양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E-순환거버넌스,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함께 '한일 그린 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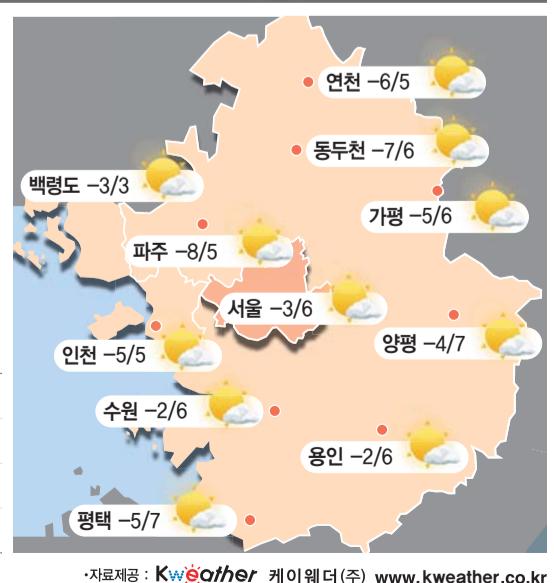
/한일홀딩스·시멘트



홈앤쇼핑, 방송발전 지원금·장비 기부

홈앤쇼핑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방송 산업 발전과 지역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송 발전 지원금 및 방송 장비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 신기술 상용화 지원금은 방송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및 중소 제작자들 지원에 쓰인다. /홈앤쇼핑

##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사

◆한국서부발전 ◇본부장급 보직이동 △ 안전경영단장 문보현 △조달협력처장 송승남 △발전처장 조한권 △건설처장 김성태 △태안발전본부장 김평기 △태안발전본부 제

2발전처장 김상태

◆NH농협은행 ◇부서장 인사 △준법감사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홍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 ‘농사꾼’과 ‘사냥꾼’의 전쟁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만난 한 금융인은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등장으로 ‘농사꾼’과 ‘사냥꾼’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IMA가 금융 시장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자산관리·예치금·투자기능을 통합한 IMA는 고객의 자금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가 특징이다. 그동안 은행이 독점하다시피 한 고객의 첫 계좌 지위에 대해 증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IMA 사업 인가를 받았다.

IMA의 핵심은 원금을 증권사가 책임지면서 최고 연 6~8%의 수익률을 꾀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3% 안팎)를 크게 웃돈다. 계좌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단기채 등으로 이동해 수익을 낸다. 속도·효율·기민함이라는 증권업의 속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IMA는 아예 고객의 모든 금융 행동을 증권사 플랫폼에 흡수한다. 은행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오래 전부터 은행은 ‘농사꾼’, 증권은 ‘사냥꾼’에 비유됐다. 은행은 예수금을 기반으로 안정적 이익을 쌓는 모델이다. 예금은 은행의 자본이자 신용의 근간이다. 또 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반면 증권은 시장 변동을 기회로 삼아 기민하게 움직인다. IMA는 이 두 모델의 경계를 허물며 한 쪽의 생태계를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번 전쟁의 첫 관심사는 ‘머니부브’다. 고객이 IMA 하나만으로 수익성과 유동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돈은 은행 예·적금에 장기간 묶어둘 유인이 떨어진다. 이미 일부 젊은층에서는 ‘첫 계좌를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열겠다’는 흐름이 감지된다. 은행이 20~30년간 쌓아온 고객 기반이 점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되면 계좌 주도권을 잃는다. 금융 플랫폼 경쟁은 결국 고객의 ‘첫 계좌’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첫 계좌를 가진 금융사는 고객 데이터·소비 패턴·투자 성향을 확보한다. 이는 마케팅·상품·관계 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연결된다. IMA가 첫 계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 자산관리(WM) 부문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은행은 펀드·신탁·보험 등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변화해 왔다. 하지만 IMA는 증권사 상품

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의 시선이 증권사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은행이 수익원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내국 은행은 아직 명확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불잡으려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최근 일부 은행이 ‘은행형 IMA’ 개발에 착수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의 규제 장벽을 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은행의 자산 구조 자체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객은 더 이상 장기 예금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좌를 찾고 있다.

은행권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하 나는 투자 기반의 자산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길이다. 디지털 WM 고도화와 자동 운용 기술 도입도 필수다. 다른 하 나는 펀테크·증권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 금융 플랫폼의 재편이다.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계좌 확보 경쟁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한다. IMA로 촉발된 이번 전쟁은 가볍지 않다. 은행의 존재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농사꾼의 땅에 사냥꾼이 들어왔다. 은행이 ‘농사만 짓는 전략’으로는 버틸 수 없다.

/bluesky3@metroseoul.co.kr

## 정보는 새고 탈퇴는 막고… 쿠팡 기본기는 어디에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쿠팡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기업의 기본기’가 무너졌다는 데서 비롯된다. 3370만 명,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부분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지난 5개월 동안 무단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그것도 지난해 12월 퇴사한 내부자가 3000만 건이 넘는 정보를 훔쳐내는 동안 쿠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건, 유출 사고로 불안해진 고객들이

‘탈퇴하겠다’고 나서자 쿠팡이 보여준 태도다. 쿠팡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다. 먼저 멤버십을 해지해야 하고, 남아 있는 이용 기간이 모두 지나야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서둘러 탈퇴하려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에서 이틀이 걸린다. 멤버십이 아닌 일반 회원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회사의 잘못에도, 고객은 탈퇴 한 번 하기 위해 멀찌시간을 내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는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이름·전화번호·주소·주문내역만으로도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온라인에는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 ‘쿠팡 개인정보유

출 단체소송’ 등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사실 쿠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보호 예산을 쓰는 기업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860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보안도 국내가 아닌 글로벌 스텐더드를 기준으로 다뤄왔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AI 시대에 외부 침해뿐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가장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와 탈퇴·해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그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보는 유출해놓고, 탈퇴는 불잡아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비자 신뢰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

/tree6834@



###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음 10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억력이 없어지는 대신 통찰력이 생긴다. 48년생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60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2년생 직장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3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있었다. 49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1년생 돌아서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73년생 물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즐거움이 동반된다. 85년생 친구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



38년생 승사에 휘 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0년생 운전에 속도 올리지 마라. 62년생 영업은 오후에 성과가 크다. 74년생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 86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39년생 바다 건너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51년생 사방에 적이 있어 일의 성사가 어렵다. 63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75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8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40년생 일이 잘 풀리니 겸손하여 보이자. 52년생 티끌은 모아도 티끌에 불과하니 헛 고생. 64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순서대로. 76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블. 88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준다.



41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53년생 해산물을 먹을 때 주의 해야. 6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77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년을 가는 사랑이 있다. 89년생 일이 자연되니 서두르지 않도록.



42년생 건강을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 54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66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다. 78년생 돌아다니다 보면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 90년생 가슴이 답답하나 술은 조심.



43년생 가까운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55년생 힘든 일은 다시 계획하여 처리하도록. 67년생 원하던 곳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절히 기도. 79년생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91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44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챙겨 나가라. 56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6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80년생 동분서주 소득은 없지만 내일을 다진다. 92년생 서남쪽으로부터 온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45년생 초기 일관하여 맡은 바 책임을 원수한다. 57년생 하찮은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69년생 공덕 없이 높은 대만 쳐다보면 어찌하나. 81년생 외출 시 자동차나 이륜차를 특히 조심. 93년생 믿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들킨다.



46년생 당장은 못 해도 마음을 접지 말고 꾸준히 노력. 58년생 슬픔은 깊게 담아 두지 마라. 70년생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82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94년생 나이가 있어도 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47년생 남의 말은 시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9년생 강한 것은 악한 것이라 했는데. 71년생 기술도 지혜도 없는 주제에 큰소리 마라. 83년생 옳다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95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해진다.



## 김상회의四季

### 입춘기도 액운 털어내기

12월 동지가 지나고 신년 2월초 입춘은 한 해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다.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땅속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며 만물이 소생할 준비를 하는 전환점이다. 불교에서는 입춘 전후에 입춘 기도를 봉행한다. 기도는 단순한 연중행사가 아니라, 묵은 업장과 액운을 소멸하고 새롭게 다가올 1년 동안 개인과 집안의 평안과 복덕을 기원하는 간절한 서원의 의식이다.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여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복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식이다. 사찰의 청정한 도량에서 하는 입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일년을 살아갈 긍정적인 힘을 얻는다. 누구나 지난해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싶은 염원을 가지니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번뇌와 업장을 씻어냄으로써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한다. 입춘기도의 지극한 힘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던 탁하고 불길한 기운을 밟은 법력으로 소멸시키고, 액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준다. 묵은 기운을 씻어낸 자리에는 만복의 기운이 가득 채워진다. 입춘기도는 불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가장 따뜻한 기도 의식이다. 한 해의 첫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두 손을 모은다.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병고와 근심이 멀어지며 복덕이 함께 하기를 빈다. 입춘기도는 액운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덕을 서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하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그 공덕으로 복이 생겨난다. 정성스러운 염원이 있어야 우주의 힘과 공명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니 복덕의 씨앗을 심는 근본 원리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1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교원 98%  
“악성민원 맞고소제  
즉각 도입해야”

L1

SPC그룹  
충북 음성에  
안전스마트공장



## 부르고뉴를 피노누아에 담다… 도멘 레셔노



‘왜 부르고뉴 피노누아인가.’

오늘은 준비된 와인을 만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와인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터. 키우기 까다롭다고는 하나 피노누아가 잘 자랄만한 기후와 땅은 많고, 피노누아의 개성을 잘 살려줄 유명 와인 메이커들도 차고 넘치는데 말이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레셔노(Domaine Lecheneaut)를 이끌고 있는 뱅상(Vincent) 레셔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양한 곳에서 피노누아 와인을 만나볼 수 있지만 부르고뉴의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테루아에서 나왔다. 뉴질랜드 피노누아 등이 품종에 대해 얘기한다면 부르고뉴는 피노누아를 통해 리외디(포도밭)가 표현하는 테루아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강조했다.

도멘 레셔노는 1950년대 후반 페르낭 레셔노가 뉘 생 조르쥬를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부르고뉴에서는 그리 오래



1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레셔노를 이끌고 있는 2세대 뱅상 레셔노(왼쪽)와 도멘의 미래를 이어갈 3세대 젤 레셔노.



2 (왼쪽부터) 도멘 레셔노 부르고뉴 오드 코트 드 뉘 블랑 2022, 도멘 레셔노 부르고뉴 피노 누아 2022, 도멘 레셔노 모레 생 드니 2022, 도멘 레셔노 뉘 생 조르쥬 2022, 도멘 레셔노 쥬브레 샹베르탕 2011, 도멘 레셔노 본 로마네 2014.

/안상미 기자

된 와이너리도 아니었고, 포도밭도 2.5ha에 불과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두 아들인 뱅상과 필립(Philippe)이 이어받으면서다. 1985년 그들의 첫 빈티지를 시작으로 테루아의 특징을 뛰어나게 표현한 와인을 만들면서 로버트 파커가 최고의 생산자에게만 부여해 ‘도멘의 모든 와인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미의 최고등급 별5개를 받기도 했다.

와인을 소재로 한 유명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도 필립과 뱅상, 두 형제의 와인으로 소개됐다. 복잡하고 즐거워며 어딘가 기품 있는 부르고뉴 와인으로 묘사되면서 경쟁 와인을 누르는데 성공한다.

형제의 와인에서 이전 아버지 뱅상과

아들 젤(Jules), 부자의 와인이다. 3세대 자녀가 여려 명 있어도 모두 의대를 지원해 와이너리의 맥이 끊기나 했는데 다행히(?) 젤은 의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와인 양조로 진로를 바꾸고는 2017년부터 합류했다.

현재 빈야드는 12ha 안팎으로 뉘 생 조르쥬 뿐만 아니라 본 로마네와 쥬브레 샹베르탕 등 25개 다양한 아펠라시옹(원산지 통제 명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다.

보통 부르고뉴에서도 뉘 생 조르쥬를 테루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와인이라고 하는데 도멘 레셔노 자체도 테루아를 닮았다. 와인도 딱 그렇게 만든다.

젤은 “우리의 역할은 이 다양한 25개

테루아의 다른 특징을 파악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과실미와 함께 우아한 고전적인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든다”고 말했다.

테이스팅에 앞서 부르고뉴에서 2022년은 아름다운(beautiful) 빈티지로 꼽힌다. 짹이 늦게 터서 서리 피해가 없었고, 일조량도 많았다. 포도가 익어가는 여름엔 건조해 집중도도 좋았다.

‘도멘 레셔노 부르고뉴 피노 누아 2022’는 레이블은 부르고뉴로 되어 있지만 뉘 생 조르쥬에 위치한 3곳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 토양이 돌이 많은 석회질부터 점토질까지 다양해 뉘 생 조르쥬의 특징을 균형 있게

잘 보여준다. 팔기같은 붉은 과실과 미묘한 꽃향에 흙내음이 따라온다. 타닌은 부드럽게 녹아들며 여운이 남는다. 와인 자체는 물론 2022년이 어렵지 않은 오픈 빈티지라 바로 편하게 마셔도 좋다.

‘도멘 레셔노 모레 생 드니 2022’는 알코올 도수 12.5%에 pH 3.3이다. 마셔보지 않더라도 뭐 하나 뛰지 않고 밸анс 가 딱 좋겠구나 싶을 수 있다. 잘 익은 과실 풍미가 뚜렷하면서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타닌은 매끄럽고 여운은 길다. 지금 마셔도 좋지만 복합미와 구조감을 감안하면 숙성잠재력도 있다.

포도줄기까지 잘 익은 해라 50%는 줄기까지 같이 발효하는 훌번치 방식으로 양조했다. 젤은 “신선함과 민트 풍미 등을 주기 위해 훌번치 방식을 썼지만 해마다 다르다”며 “쉐프가 향신료 등을 상황에 맞게 쓰듯 그 해 빈티지와 컨디션을 보면서 추가하거나 뺀다”고 설명했다.

‘도멘 레셔노 뉘 생 조르쥬 2022’는 뉘 생 조르쥬에서 모래토에 표토층이 얇아 우아하고 과실미가 좋은 빈야드부터 남쪽으로는 토양자체가 좀 더 복합적이고 묵직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곳까지 다양하게 블렌딩했다. 잘 익은 검붉은 과실에 꽃향이 어우러지고, 타닌은 확실히 힘이 더 느껴지지만 산도와 균형을 이룬다. 5~10년, 또는 10년 이상 숙성도 가능하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롯데시네마, 차세대 기술 ‘광음LED’ 도입

월드타워점에 오픈… 언박싱 세레모니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월드타워에 기술특화관 ‘광음LED’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광음LED’ 첫 관객들에게 언박싱 세레모니를 진행한다.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와 LED 스크린 상영관 ‘수퍼LED’의 기술을 결합한 ‘광음LED’는 영상과 사운드를 정교하게 구현한 차세대 기술특화관이다. ‘LED 스크린’이 표현하는 깊은 블랙과 선명한 색감은 작품의 디테일을 극대화하고, ‘광음시네마’의 강렬한 저음과 풍부한 사운드는 현장감을 더한다. 빛과 소리의 완벽한 시너지를 선사하는 ‘광음LED’는 기존 상영관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관람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광음LED’ 도입을 기념해 ‘월타 비비드(VIVID) 상영회’를 진행한다. ‘광음LED’의 첫 관객이 되어 좌석 패키징을 직접 풀어



롯데시네마가 플래그십 점포인 월드타워점에 기술특화관 ‘광음LED’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언박싱 세레모니를 진행한다. 월드타워점에 언박싱 세레모니를 위한 선물들이 좌석에 배치돼 있다.

볼 수 있는 ‘언박싱 세레모니’를 마련해 새로운 상영관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상영회에 참석한 관객들에게는 언박싱 선물 패키지도 제공되며, 이후 ‘광음LED’의 기술적 강점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월타 VIVID 상영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며, 11일까지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 메가박스 ‘특별관’ 전략 통했다… 매출 2배 늘어

메가박스가 특별관 중심 전략을 본격 강화하며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멀티플렉스 시장이 ‘경험 소비’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기술특별관을 확장한 결과, 올해 관람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메가박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술특별관(돌비 특별관·MEGAIMX4 D·MEGALILED) 상영매출 비중은

14.4%로 집계됐다. ‘F1 더 무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등 특별관 선호도가 높은 작품들의 흥행과 시설 고도화가 맞물리며 시너지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F1 더 무비’는 돌비 특별관에서만 94일간 장기 상영됐고, ‘진격의 거인’은 MX4D 선택 비중이 88%에 달하며 177일간 4D관에서 상영이 이어졌다. 이 같은 특별관 수요

확대는 메가박스의 3분기 평균 티켓 가격을 전년보다 11%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다.

메가박스는 올해 아시아 최초로 ‘돌비 비전+에트모스’ 특별관을 선보이는 등 기술특별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서울·인천·충북 지역에 신규 지점 3곳을 열고, 코엑스·강남·분당·목동·고양·스타필드 등 5개 지점을 리뉴얼했다. 코엑스점에는 LG전자 LED 스크린을 적용한 ‘MEGALILED’를 도입하고, 강남·분당점에는 전관 리클라이너석을 설치하는 등 프리미엄관 경쟁력을 강화했다.

리클라이너 좌석을 들여놨다.

센텀시티점과 평택점은 리클라이너 좌석 도입과 함께 극장 환경 전반을 리뉴얼했다.

올해 새로 선보인 고덕강일·파주운정점은 프리미엄 인프라로 개관했다. 지난 4월 새롭게 문을 연 고덕강일점은 8개관 중 5개관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적용했다. 지난 5월 문을 연 파주운정점은 전 상영관을 리클라이너관으로 구성했다.

## 더 편하고 안락하게… CGV, 리클라이너 좌석 확대

CGV가 극장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클라이너 상영관을 확대하는 등 상영관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CGV는 올해 극장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극장 18개 상영관 70개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신규 도입했다고 11일 했다.

CGV 강릉은 전관을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교체했다. 창원데시티·대구죽전·제주노형·대구한일·대구스타디움·인천·고양백석·광주첨단·동래 등 총 극장 10개엔 리클라이너 상영관을 넓혔다. 용산아이파크몰·영등포타임스퀘어·왕십리·홍대 등 스크린X 거점 4개관에도

## 메트로 한줄뉴스



▲KBO “2026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FC서울 제시 린가드, 2년 뛴 프로축구 K리그 무대 고별전

/사진 뉴시스

▲김해FC, 최우수지도자·베스트일레븐 수상자 8명 배출

▲K리그2로 강등된 수원FC, 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회 전원 사임

▲IOC, ‘여성 성전환 선수’ 제한하나…새로운 성별 규정 추진

▲20주년 맞은 ‘공예트렌트페어’ 개막…공예의 다양성·시장성 조명